

## 청소년의 흡연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에 관한 연구

전 은 영\* · 이 수 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폐기능을 저하시키고(Lebowitz, 1992), 혈중 지질치의 이상을 유발하며(서영성, 1998; Hunter et al., 1986), 만성기관지염을 비롯하여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각종 암의 이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연구·발표, 그리고 금연 운동 등의 효과로 성인의 전체적인 흡연율은 1980년에 69.5%에서 1996년에 67.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차 연소화되고 있는 추세여서(한국금연 운동 협의회 & 헬스비전 21, 2000), 미국의 경우 흡연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85~90%가 10대이며(Hanson, 1999),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WHO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에 이른다고 집계되어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재고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유전, 니코틴의 약리·생리작용, 부모형제 및 교우 관계, 대중매체, 스트레스, 자아개념, 문제대처능력, 자기효능감과 같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칫 알코올 혹은 다른 치명적인 약물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Torabi, Bailey, & Majd-Jabbari, 1993) 다른 시기보다도 특히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흡연동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1위로 꼽고 있는데(진희숙, 1994), 청소년들은 인지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감정적 지향방법인 백일몽, 울기, 걱정하기 등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단기적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건전하지 못한 흡연을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더하여 흡연청소년의 43.3%가 가족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신용경 외, 1998),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가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 추천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은 성인과는

\*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경산대학교 아동청소년학부 전임강사

달리 가정 및 학교 생활환경이나 교우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Reimers et al, 1990), 가족기능이 저하되고(강윤주와 서성재, 1996),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지인순, 1989) 및 부모의 과도한 기대치(김순이, 1988)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흡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형제 중에 흡연자가 있을수록 그리고 흡연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1997; Kim, Juon & Nam, 1992; Reimers et al, 1990).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쇠퇴되고 청소년이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과 더 밀착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 중 하나로서(Miller, 1997), 가족 붕괴와 입시위주의 학교생활, 집단따돌림 현상 등 우리사회상을 반영하여 생각할 때 청소년 흡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파괴적·폭력적인 행동과 자살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Prosser & McArdle, 1996), 이들 대부분이 약물이나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되어 흡연과 정신사회적 장애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을 하는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분노-적개감, 강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자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어(송광호외, 1998), 청소년 흡연을 연구할 때 청소년의 내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연구된 내적 특성으로는 성격(류미경 외 6인, 2000), 우울(Givarry, 2000; Escobedo, Reddy & Giovino, 1998), 성역할(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등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흡연을 시도하는 십대들에게서 우울과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scobedo, Reddy & Giovino, 1998)의 Givarry(2000)는 우울성향과 흡연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CES-D(Kaholokula et al., 1999)와 Beck우울척도

(Haukkala et al., 2000)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Fuh 등(2000)은 SF-36도구중 활력 문항이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도(Jones et al., 1999)의 연구에서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SF-36의 정신건강과 활력문항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보고되었으므로 활력상태는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들은 이 도구를 선택하여 활력상태가 청소년의 내적 특성으로서 흡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고찰해볼 때 가족기능, 스트레스, 활력상태가 모두 포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연교육은 나이가 어릴 때에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연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흡연과 관련된 변인파악이 우선시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특징적인 문제중 하나인 가족기능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활력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흡연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그리고 활력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금연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네제,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1) 청소년의 흡연 ; 청소년은 13~19세까지의 연령을 언급하며 사춘기적 변화로 시작되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시기이며, 청소년의 흡연은 본 연구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담배를 피운다'라고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2) 스트레스 ; 스트레스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극으로서, 반응으로서, 그리고 자극과 반응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로서 볼 수 있으며(전영자와 김세진, 1999), 본 연구에서는 Johnson & McCutcheon(1980)이 개발한 생활사건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이영자(1996)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가족기능 ; 체제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제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가족의 행위 또는 역동성을 말하며(Kuhn & Janosik, 1980), 본 연구에서는 Smilkstein(1978)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활력상태 ; 생활하는 힘 또는 활동하는 힘(국어사전, 1995)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SF-36 문항 가운데 활력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달리 가족 등 주변환경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일어나며,

연령에 따라 다른 경험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흡연은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YWCA(1991)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 및 진학 문제가 6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출의 중요요인으로 가정문제(36.1%)나 퇴폐향락적인 사회환경(18.1%)보다 입시위주의 환경(48.5%)을 들고 있다. 이유미(1994)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학업문제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임미향(1992)는 성적인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더 빈번히,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는 학교생활, 그 중에서도 학업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주, 1998; 임웅 등 1992), Weinrich 등(1996)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흡연 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대처기술이 부족하며 불안으로 인한 심인성 신체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성례(1997)는 흡연자극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압력,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흡연자극 환경,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의 결여, 성인 모방 심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조절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흡연은 가정환경적 요인의 결과라는 연구보고가 있으며(Kendler et al., 1993), 특히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서 가정의 외형적 환경 요인들보다 기능적 환경 요인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강윤주 & 서성제, 1996). 임용 등(1992)이 흡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기능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의 흡연율은 44.7%, 중간 정도의 집단에서의 흡연율은 21.7%, 그리고 가족기능이 건강한 집단에서의 흡연율은 17.8%로 각각 나타났으며, 강윤주와 서성제(1996)가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흡연학생은 비흡연학생에 비해 가족기능도, 부모의 관리감독 정도, 아버지와의 친밀성 정도, 어머니와의 친밀성 정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지수를 나타내었다. 신용경 등(1998)이 42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흡연청소년의 43.3%가 심각한 역기능적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서,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김순이, 1988; 지인순, 1989; 이지원, 1997) 부모에 대한 만족과 가족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흡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적 특성의 주된 변인으로 성격이 많이 언급되는데, 몇몇 연구에서(Eysenck, 1980; Tollison, 1986) 외향적인 사람은 낮은 각성 수준에서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은 높은 각성 수준에서 강한 흡연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기학과 한종철(1996)의 연구에서는 강인성, 내향성, 외향성, 정서성 등 모든 성격이 낮은 각성 수준에서 높은 흡연 욕구를 보인다고 하여 성격과 흡연과의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내적 특성으로서의 우울은 다수의 연구(Givarry, 2000; Coogan et al., 1998; Patton et al., 1996)에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청소년들은 불안감, 우울증상, 자살충동, 자기혐오감, 학교기피

증, 낮은 학업성취도 등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흡연은 불안장애, 성격장애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Grant & Harford, 1995) 밝혀졌으며, 송광호 등(1998)이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불안한 남성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Escobedo, Reddy와 Giovino(1998)이 흡연을 예측하기 위하여 미국CDC의 자료(TAPS; the Teenage Attitudes and Practices Survey, 1996)를 10년동안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울과 흡연시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울한 청소년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은 금연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Haukkala et al, 2000) 흡연과 관련하여 우울은 내적 특성으로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Kaholokula 등(1999)이 우울 측정도구인 CES-D (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우울과 일일 흡연량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으나, 연령과 교육정도를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선정에 있어서 여러 변인을 고려해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uh 등(2000)은 SF-36의 활력항목이 불안과 우울점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Jones 등(1999)의 연구에서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SF-36의 정신건강과 활력문항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보고하여 우울과 관련된 개념으로 SF-36의 활력문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SF-36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건강한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들에게 흡연과 관련하여 우울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활력상태를 측정하므로써 흡연에 있어서의 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목적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12개 학급과 남녀 중학교 12개 학급을 각각 지역별 할당 표출법으로 선정하여 담임선생님의 협조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졌다.

#### 3.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Johnson & McCutcheon (1980)이 개발한 생활사건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이영자(1996)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지난 1년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자신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Likert 3점 척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 도구의 문항

을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위영역(교우관계 7문항; 학교생활 5문항; 가정환경 15문항; 학업성적 3문항; 환경변화-이사/전학 3문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판 생활사건 조사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총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964$  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233\sim0.8062$ 이었다.

#####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milkstein (1978)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가족의 적응능력, 가족간의 동료의식정도, 가족의 성숙도, 가족간의 애정도, 문제 해결을 가족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0,1,2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kert 4점 척도로 바꾸어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062$ 이었다.

##### 3) 활력상태

청소년의 활력상태는 Ware(1993)가 개발한 SF-3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9개 영역의 3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연구 및 보건정책 평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사용되어 왔으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비롯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이 도구는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또한 질병 특이 지표와 관련하여 진료와 연구의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Ware, 1993). 본 연구에서는 SF-36의 하부항목중 활력에 관한 4문항을 선정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은 '나는 의욕이 넘친다' '나는 힘이 넘친다' '나는 지친다' '나는 피로를 느낀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활력상태임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537$ 이었다.

#### 4. 자료수집 방법

설문조사 결과 총 174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전체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1710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시켰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Ver7.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흡연 여부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 876명(51.2%), 고등학생 834명(48.8%)이며, 이중 과거에 흡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10)			
변 수	항 목	빈도	%
학교	중 학교	876	51.2
	고등학교	834	48.8
성별	남	882	51.6
	여	828	48.4
흡연여부	유	324	18.9
	무	1386	81.1
계열	인문계	449	26.3
	실업계	388	22.7
	중 학교	873	51.1
	소계	1710	100.0
흡연시작 시기	초등학교	57	17.6
	중 학교	211	65.1
	고등학교	56	17.3
	소계	324	100.0

324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였다. 흡연 시작 시기는 중학교(211명, 65.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초등학교(57명, 17.6%), 고등학교(56명, 17.3%)순이었다.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의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 $p=.000$ ),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p=.028$ ), 중학교나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p=.007$ )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p=.000$ ), 인문계나 실

<표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의 차이

특 성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학교	중 학교	10.92± 9.55	-5.021	.000**	12.14±3.83	1.785	.074	11.17±2.22	1.541	.123
	고등학교	13.64± .000			11.79±4.25			11.01±2.07		
성별	남	12.82±11.75	2.195	.028*	11.65±4.06	-3.875	.000**	11.27±2.18	3.385	.001*
	여	11.62±10.75			12.44±4.37			10.91±2.10		
계열	인문계	20.87±16.98	16.960	.000*	11.97±3.26	10.776	.000**	10.95±2.08	1.505	.222
	실업계	23.57±24.09			11.12±3.34			11.08±2.05		
	중 학교	17.25±16.34			12.08±3.51			11.17±2.22		
흡연 시작 시기	초등학교	16.73±13.08	.283	.754	10.40±3.85	.622	.538	11.09±2.39	1.031	.378
	중 학교	18.05±14.80			11.28±6.65			11.00±2.08		
	고등학교	16.48±16.13			10.51±3.05			10.64±2.01		

\*  $p < .05$ , \*\*  $p < .001$

<표 3> 청소년의 흡연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의 차이

구분	Mean±SD 흡연여부		t	Sig.	
	유	무			
스트레스	교우관계	5.03± 5.15	2.22±3.29	11.741	.000*
	학교생활	1.77± 2.63	.73±1.54	10.632	.000*
	가정환경	5.38± 6.02	3.89±4.94	4.475	.000*
	학업성적	2.41± 2.65	2.11±2.31	1.910	.056
	환경변화(이사/전학)	2.58± 2.85	2.34±2.75	1.270	.204
총합	16.43±14.10	10.64±9.87	8.318	.000*	
가족기능	11.05±14.10	12.19±3.59	-4.369	.000*	
활력상태	15.72± 2.70	16.01±2.81	-1.611	.107	

\* P < .001

업계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p=.000) 나타났다. 활력상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p=.00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참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흡연 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 3. 청소년의 흡연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의 차이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았다. 흡연 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 특히 교우관계(p=.000), 학교생활(p=.000), 가정환경(p=.000)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 4. 청소년의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관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스트레스는 하위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45~.872, p<.001),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가족기능(r=-.132, p<.001)과 활력상태(r=-.072, p<.00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이

<표 4> 청소년의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관계

구분	교우관계	학교생활	가정환경	학업성적	환경변화 (이사/전학)	스트레스 (총합)	가족기능	활력상태
교우관계	1.0000							
학교생활	.872**	1.0000						
가정환경	.448**	.560**	1.0000					
학업성적	.338**	.287**	.403**	1.0000				
환경변화 (이사/전학)	.245**	.315**	.301**	.315**	1.0000			
스트레스 (총합)	.749**	.886**	.819**	.632**	.557**	1.0000		
가족기능	-.108**	-.111**	-.163**	-.049*	.006	-.132**	1.0000	
활력상태	-.055*	.013	-.106**	-.017	.013	-.072**	.278**	1.0000

\*\* P < .001, \* P < .05

높은 경우 활력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78, p<.001).

### 5.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분석결과 흡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스트레스 (p=.0000), 가족기능(p=.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에서 상수만의 적합도를 측정한 -2 Log Likelihood값은 1448.6796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독립변수들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한 -2 Log Likelihood값은 1362.38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을 고려한 -2LL값과 상수만을 고려한 -2LL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족기능 변수의 흡연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기능도가 낮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의 82.90%가 이 변수에 의해 정확하게 흡연여부가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흡연은 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

환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은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까지 내포하기 때문에 금연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명되어 이 변수들에 대한 수정을 위한 중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흡연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고, 가족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흡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가족기능과 스트레스로서 이 두 변수의 예측력은 82.9%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척도는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점수화한 것으로서 학교 및 가정환경, 교우관계, 성적, 이사/전학등 환경변화를 측정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타당하게 측정하였다. 또한 가족기능 척도는 가족의 적응력, 동료의식 정도, 성숙도, 애정도, 문제해결을 함께 하려는 능력을 측정하여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을 파악하는 척도이며, 하위영역별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이므로 청소년흡연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대해 주요 중재변인으로 삼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인간은 '가족'이라 부르는 감정적 장(emotional field)에서 태어났으며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족기능은 가족이 작용하는 과정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 환경, 그리고 가족이 지닌 자원을 모두 포함하며, 목

<표 5> 청소년흡연 예측 요인

Variable	B	S.E.	Wald	df	Sig	R	Esp(B)
스트레스	.0373	.0055	46.2671	1	.0000*	.1748	1.0380
가족기능	-.1128	.0224	25.3272	1	.0000*	-.1269	.8933
활력상태	.0094	.0255	.1351	1	.7132	.0000	1.0094
Constant	-.9601	.4371	4.9463	1	.0261		

\* p < .001

Model ;  $\chi^2 = 86.295$ , df=3, p=.0000

Predicted percent(overall) ; 82.90%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이 작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최영희와 이경혜, 1993). 잘 분화된 가족구성원은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스트레스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Bowen, 1976), 가족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으며(Hilliard, Gjerde, & Parker, 1986; Smilkstein, Ashworth, & Montano, 1982; Ireton, 1980),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흡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경 외, 1998). 본 연구결과에서도 흡연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 많이 상의하는 청소년일수록 흡연을 하지 않는 연구결과(이지원, 1997)와 종합하여 볼 때 금연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가족기능 강화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흡연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Sussman et al., 1993). Johnson과 Gilbert(1991)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즉 분노, 불안 등의 긴장감이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Castro 등(1987)은 잠재된 스트레스원이나 인지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직접적인 흡연원인으로 보고하였고, John 등(1987)은 흡연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진희숙(199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흡연동기 중 1위로 꼽고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건전하지 못한 흡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은 문제 발생시 부모와 의논하기보다는 또래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흡연행동이 빈번하였다는 연구결과(이지원, 1997)와 또래 집단과 의논하는 청소년은 부모와 상의하는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회복과 동시에 스트

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을 측정하는데는 Zung(1965)의 자가평정우울척도가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CES-D(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도구 역시 연구 분석방법에 따라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몇몇 연구(Fuh et al., 2000; Jones et al., 2000)결과 SF-36의 활력항목이 불안과 우울점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F-36척도중 활력항목을 선정하여 청소년의 내적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흡연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활력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Givarry, 2000; Escobedo, Reddy & Giovino, 1998)에서 우울성향과 흡연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Beck's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우울과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비교 측정한다면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측인자가 파악될 것으로 사료된다.

Kim, Shin과 Shin(1998)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금연 경험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금연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은 흡연기회와 금연에 대한 가치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서 성공하는 청소년은 건강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높은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금연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을 간호함에 있어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자신과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청소년을 돌봄에 있어서 좀 더 효율

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과 가족기능, 스트레스, 활력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금연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12개 학급과 남녀 중학교 12개 학급을 각각 지역별 할당표출법으로 선정하여 담임선생님의 협조하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10월 27일부터 2주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Johnson & McCutcheon(1980)이 개발한 생활사건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이영자(1996)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족기능은 Smilkstein(1978)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를 사용하였고, 활력상태는 SF-36(Ware, 199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Ver7.5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Frequency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흡연 여부에 따른 계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 876명(51.2%), 고등학생 834명(48.8%)이며, 이중 과거에 흡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은 324명으로 전체의 18.9%이었다. 흡연시작 시기는 중학교(211명, 65.1%)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계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 $p=.000$ ),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p=.028$ ), 중학교나 인문계보다 실업계에서( $p=.007$ )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p=.000$ ), 인문계나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p=.000$ ) 나타났다. 활력상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 $p=.001$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흡연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가족기능, 활력상태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흡연 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우관계, 학교생활, 가정환경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흡연 청소년은 비 흡연 청소년에 비해 가족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가족기능( $r=-.132, p<.001$ )과 활력상태( $r=-.072, p<.001$ )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이 높은 경우 활력상태 또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r=.278, p<.001$ ).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력있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흡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스트레스( $p=.0000$ ), 가족기능( $p=.0000$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변수는 흡연여부에 있어서 대상자의 82.9%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흡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활력상태와 자기효능감을 비교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금연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3. 금연 프로그램 운영시 스트레스 관리훈련과 가족의 참여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최영희와 이경혜 (1993). 가족중심 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 강윤주, 서성제 (1996).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서울시 일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1), 28-44.
- 김교헌, 전경구 (1994). 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대처 및 그 효과.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2(2), 229-236.
- 김순이 (1988). 약물남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실태조사. 최신의학, 36(1), 130-141.
- 서영성 (1998). 흡연이 혈청지질에 미치는 영향-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남성을 중심으로. 가정의학회지, 19(4), 383-393.
- 송광호, 김경록, 박은희,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1998). 남성의 흡연형태에 따른 심리적 경향차이. 가정의학회지, 19(3), 312-319.
- 신성례 (1997). 흡연청소년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경, 강윤주, 고복자, 문선임, 박수연, 이해리 (1998).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실시효과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12), 1387-1399.
- 이유미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지, 이정애 (1993). 광주지역 남자 중,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관련요인. 예방의학, 26(3), 359-370.
- 이지원 (1997). 청소년의 흡연과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향 (1992).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실태에 관한 분석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웅, 김광휘, 박월미, 이흥수, 이중훈 (1992). 고교생 흡연실태 및 가족기능지수와 흡연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3(7), 592-601.
- 이기학, 한종철 (1996). 대학생 흡연자의 각성 수준과 상황에 따른 흡연욕구 및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14-127.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영미 (1991).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행위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2), 193-215.
- 전영자, 김세진 (1999). 대학생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 인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지인순 (1989). 중학생의 흡연수용실태를 결정하는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희숙 (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1988~199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Castro, F. G., Maddahian, E., Newcomb, M. D., & Bentler, P. M. (1987). A multivariate models of the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J Health Soc Behav. 28(9), 273-289.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Preventive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Atlant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1996). Tabacco use usual source of cigarettes among High School Students-United States, 1995.
- Chassin, O., Presson, C. C., Sherman, S. J., & Edward, D. A. (1992). The natural history of cigarette smoking young adult social ro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28-347.
- Coogan, P. F., Adams, M., Geller, A. C., Brooks, D., Miller, D., R., Lew, R., A., & Koh, H, K.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onnecticu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5(10), 17-24.
- Eysenck, H. J. (1980). The causes and effects of smoking. London: Temple Smith.
- Escobedo, L. G., Reddy, M., & Giovino, G. A.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cigarette smoking in US adolescents. Addiction, 93(3), 433-440.
- Fuh, J. L., Wang, S. J., Lu, S. R., Juang, K. D., & Lee, S. J. (2000).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Chinese (Taiwanese) version of the SF-36 health survey among middle-aged women from a rural community. Qual Life Res. 9(6), 675-683.
- Gilvarry, E. (2000). Substance abuse in young people. Journ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55-80.
- Grant, B., Harford, T. (1995). Comorbidity between DSM-IV alcohol use disorders and major depression :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39, 197-206.
- Hanson, M. J. S. (1999). Which Straw will Break the Camel's Back?. AJN, 99(11), 63-69.
- Haukkala, A., Uutela, A., Vartiainen, E., McAlister, A., & Knekt, P. (2000). Depression and smoking cessation : the role of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ddict Behav. 25(2), 311-6.
- Hilliard, R., Gjerde, C., Parker, L. (1986). Validity of two psychological screening measures in family practice : Personal inventory and family APGAR. J Fam Pract, 23, 345-349.
- Hunter, S. M., Croft, J. B., & Parker, F. C. (1986). Biobehavioral studies in cardiovascular risk development. In: Berenson GS editor. Causation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children. New York: Raven Press, 223-253.
- Ireton, H. R. (1980). A personal inventory. J Fam Pract 11, 137-140.
- Johnson, E. H., Gilbert, D. (1991). Famili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moking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 Ethn Dis, 1(4), 320-324.
- Jones, R., Yates, W. R., Williams, S. Zhou, M., & Hardman, L. (1999). Outcome for adjustment disorder with depressed mood : comparison with other mood disorders. J Affect Disord, 55(1), 55-61.
- Kaholokula, J. K., Grandinetti, A., Crabbe, K. M., Chang, H., K., & Kenui, C. K. (1999). Depressive symptoms and cigarette smoking among Native Hawaiians. Asia Pac J Public Health, 11(2), 60-4.
- Kendler, K. S., Meale, M. C., MacLean, C. J., Heath, A. C., Eaves, L. J., &

- Kessler, R. C. (1993). Smoking and major depression. A causal analy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36-43.
- Kim, J. H., Juon, H. S., & Nam, J. J. (1992). The effect of parent support on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 Epidemiol, 14(10), 1-12.
- Kim, M. S., Shin, K. R., & Shin, S. R. (1997).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s of Smoking Cessation; A Prelude to Research With the Human Becoming Perspective. Nursing Science Quarterly, 11(3), 105-109.
- Kuhn, K., & Janosik, E. H. (1980). Establishment of a family function, In Miller, J. R. & Janosik, E. H., Family-Focused Care,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Lebowitz, M. D. (1992). Environmental conditions, cigarette smoking and occupational conditions. In : McArney RE et al.(Eds). Textbook of adolescent medicine. W. B. Saunders Company, 327-328.
- Miller, P. (1997). Family structure, personality, drinking, smoking and illicit drug use: A study of UK teenag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45, 121-129.
- Patton, G. C., Hibbert, M., Rosier, M. J., Carlin, J. B., Caust, J., & Bowes, G. (1996). Is smoking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6, 225-230.
- Prosser, J., & McArdle, P. (1996). The changing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for a deterioration. Psychological Medicine, 26, 715-725.
- Reimers, T. M., Pomrehn, P. R., Becker, S. L., & Lauer, R. M. (1990). Risk factors for adolescents cigarette smoking (the Muscatine study).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44(11), 1265-1272.
- Smilkstein, G. (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Journal of Family Practice, 6, 1231-1239.
- Smilkstein, G., Ashworth, C., & Montano, D. (198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amily APGAR as a test of family function. J Fam Pract, 15, 303-311.
- Sussman, S., Brannon, B. R., Dent, C. W., Hansen, W. B., Johnson, C. A., & Flay, B., R. (1993). Relations of coping effort, coping strategies, perceived stress and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 Int J Addict, 28(7), 599-612.
- Tollison, R. D. (1986). Smoking and society: Toward a more balanced assessment. D. C. Health & Company/Lexington, Massachasetts.
- Torabi, M. R., Bailey, W. J., & Majd-Jabbari, M. (1993). Cigarette smoking as a predictor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of the gateway drug effect. Journal of School Health, 63(7), 302-306.
- Ware, J. E. (1993). Measuring patient's view: the optimum outcome measure SF-36; a valid, reliable assessment

of health from the patient's point of view. Br Med J, 306, 1429-1430.

Weinrich, S., Hardin, S., Valois, R. F., Gleaton, J., Weinrich, M., & Garrison, C. Z. (1996). Psychological correlates of adolescent smoking in response to stres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0(1), 52-60.

WHO. (1997). Tobacco or health: A global status report.

Zung,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2: 63-70.

- Abstract -

Key concept : Adolescent smoking, Family function, Stress, Vital power

### A Study for Adolescent Smoking, Stress, Family Function and Vital Power

*Jeon, Eun Young\* · Lee, Soo Yeon\*\**

This is a survey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moking cessation teaching as investigate adolescent smoking, stress, family function and vital power.

Data collection was done at the high school(12 class) and middle school(12 class) with quota sampling during 2 weeks from October 27, 2000. in the metropolitan area of Taegu. Tot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10 students.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the Life Event Checklist, Family APGAR, and vital power item among in the SF-36.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by SPSS/PC Win Ver7.5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consisted with middle school student (876, 51.2%)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ents that they have used smoking at past or current smoker was reported 18.9%. Most of the smoking adolescents reported that they started smoking during middle school age, and there were more smoking rate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2) There were more stress among high school, men, and vocational high school. In aspect of family function, there were reported high score among women and middle school.

At the vital power, there were reported more score among men students than women students.

3) Current smokers were more likely than nonsmokers to report more stress, low family functioning.

4) In order to identify predicting factor for adolescent smoking, family function and stress were tested significant variables statistically.

---

\* Department of Nursing, Kyungsan University

\*\* Department of Adolescents, Kyungsan University